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본부장	부원장

1. 출장목적

- 독일, 프랑스의 농업부문 정책금융체계 조사
※ 관련 연구과제: 선진 농업금융 사례분석(정책과제)

2. 주요 조사내용

- 프랑스의 농업부문 지원제도의 실태
 - 농업금융시장의 현황
 -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및 지원체계
 - 농업정책금융 지원방식
 - 농업정책금융 취급 기관 및 역할
 - 대출절차
 - 농업신용보증제도 운영 실태
 - Credit Agricole과 Ministry of Agriculture의 역할
- 독일의 농업부문 지원제도의 실태
 - 농업금융시장의 현황
 -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및 지원체계
 - 농업정책금융 지원방식
 - 농업정책금융 취급 기관 및 역할
 - 대출절차
 - 농업신용보증제도 운영 실태
 - Rentenbank의 지원체계와 BMELV와의 관계, 역할

3. 출장개요

출 장 자			출 장 지 역	출 장 기 간
소 속	직 위	성 명		
농업농촌정책 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김 미 복	프랑스, 독일	2011. 11. 13 ~ 11. 20 (8일간)

4. 출장일정

일 자	일정/ 면담자	조사내용
11.13(일)	인천→파리(항공)	
11.14(월)	프랑스 농업부 방문 M. Guilhem BRUN, Deputy Director for european affairs (DGPAAT/SDAE) , M. Dominique GIGAN, Special representative East Asia	프랑스 농업정책 전반과 EU CAP 정책과의 관계, 정책금융 관련 인터뷰 진행
11.15(화)	크레디 아그리폴(FNSA) 방문 Catherine Migault, head of Agriculture FNCA/ FNCA Affaires agricoles et agroalimentaires	프랑스 정책금융체계와 CA의 실적 및 역할, 자세한 대출절차 조사
11.16(수)	파리-> 프랑크푸르트(기차)	
11.17(목)	프랑크푸르트 대학 및 서점 방문 *BMELV(본)방문 예정이었으나, 담당자가 Rentenbank로 자리를 옮겨 Rentenbank에서 면담진행	자료 및 문헌 수집
11.18(금)	렌텐뱅크 방문(Rentenbank) Promotional Loan Programmes 담당자 Dr. Klaus Hollenberg/ Director of Agribusiness/ Rentenbank Christian Pohl / Agribusiness / Rentenbank	독일 농업정책 전반과 정책금융관련 인터뷰 진행, Rentenbank의 유니크한 농업부문 특별대출 실적관련 설명
11.19~20 (토일)	프랑크푸르트→인천(항공)	

5. 면담자

M. Guilhem Brun

Head of European Affairs Division
General Directorate for Agricultural, Agrifood and Regional Policies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3 rue Barbet de Jouy
75349 Paris 07 SP France
Tel: +33 1 49 55 45 57
Fax: +33 1 45 51 67 87
E-mail: guilhem.brun@agriculture.gouv.fr

M. Dominique Gigan

Special Representative East asia
General Directorate for Agricultural, Agrifood and Regional Policies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3 rue Barbet de Jouy
75349 Paris 07 SP France
Tel: +33 1 49 55 48 69
Fax: +33 1 49 55 59 55
E-mail: dominique.gigan@agriculture.gouv.fr

Ma. Catherine Migault

Head of Agriculture FNCA
Direction economie, territoires et performance
Affairs agricoles et agroalimentaires
Federation Nationale du Credit Agricole
48, rue La Boetie
75008 Paris
Tel: +33 1 49 53 43 80
Fax: +33 1 49 53 43 15
E-mail: catherine.migault@ca-fnca.fr

Dr. Klaus Hollenberg

Direktor
Abteilungsleiter Agribusiness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Hochstraße 2
60313 Frankfurt am Main
Tel.: +49-069-2107-278
Fax: +49-069-2107-6459
E-mail: hollenberg@rentenbank.de

Mr. Christian Po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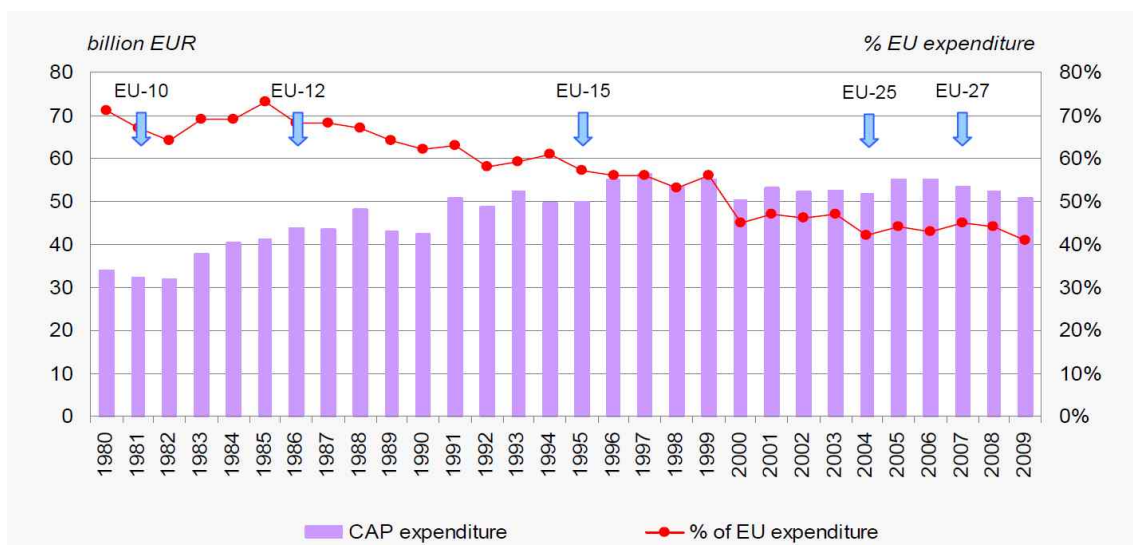
Abteilungsleiter Agribusiness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Hochstraße 2
60313 Frankfurt am Main
Tel.: +49-069-2107-376
Fax: +49-069-2107-6459
E-mail: pohl@rentenbank.de

6. 주요 조사내용

6.1. EU

- EU의 전체 예산에서 CAP 정책에 대한 지출의 추세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거의 75%에서 2009년 기준으로 41% 정도이고 2013년 예상치는 39%임.
 -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EU 가입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EU의 예산 규모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CAP 지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큼.
 - 이러한 감소추세는 CAP정책의 reform과정과 다른 EU정책들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그림. CAP expenditure in the total EU 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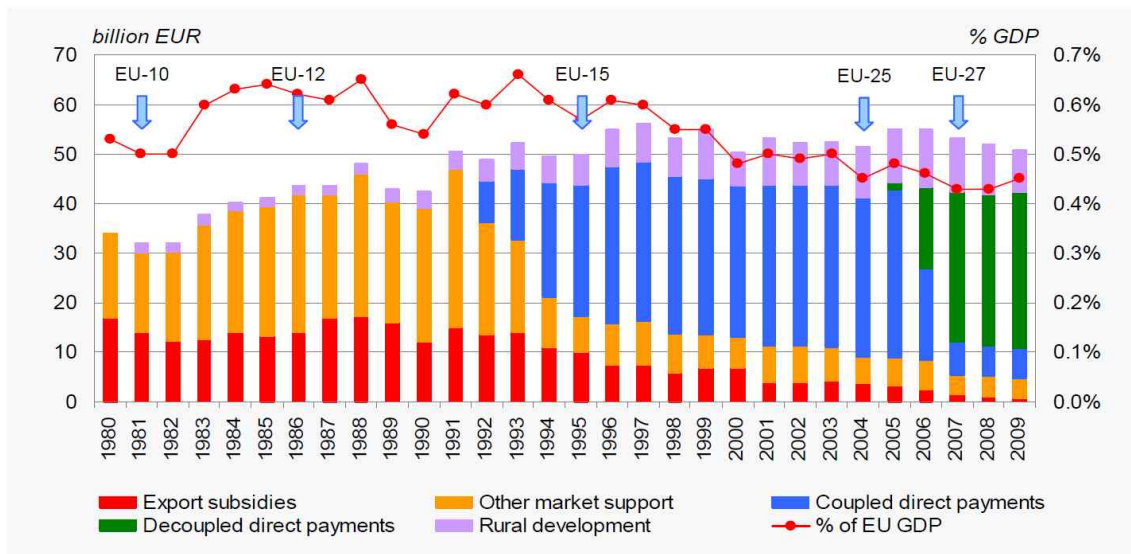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 CAP 지출에 대해 정책종류별로 살펴보면,
 - 80년대 지출은 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지원(시장개입 혹은 수출보조)에 중점을 두었음.
 - 1992년 개혁으로 인한 큰 변화는 시장을 통한 가격 보조 지원이 직접지불로 바뀐 것이고 따라서 가격지원이 생산지원으로 대체되었음. 이 시기부터 농촌개발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함.
 - 이 그래프는 생산불연계 직접지불변화와 함께 2003년 개혁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지불은 더 이상 헥타르당 또는 가축당 지불이 없고 농업인이 기준이 되는 기간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금을 받게 됨. 농촌개발에 대한 지출은

계속 강화되었음.

- CAP에 대한 지출이 EU의 규모가 연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 불구하고 안정화되었음. GDP에 대한 전체지출 규모는 실제로 감소하였고, 90년대에는 GDP 0.65%를, 현재에는 0.45%임.

그림. CAP expenditure and CAP reform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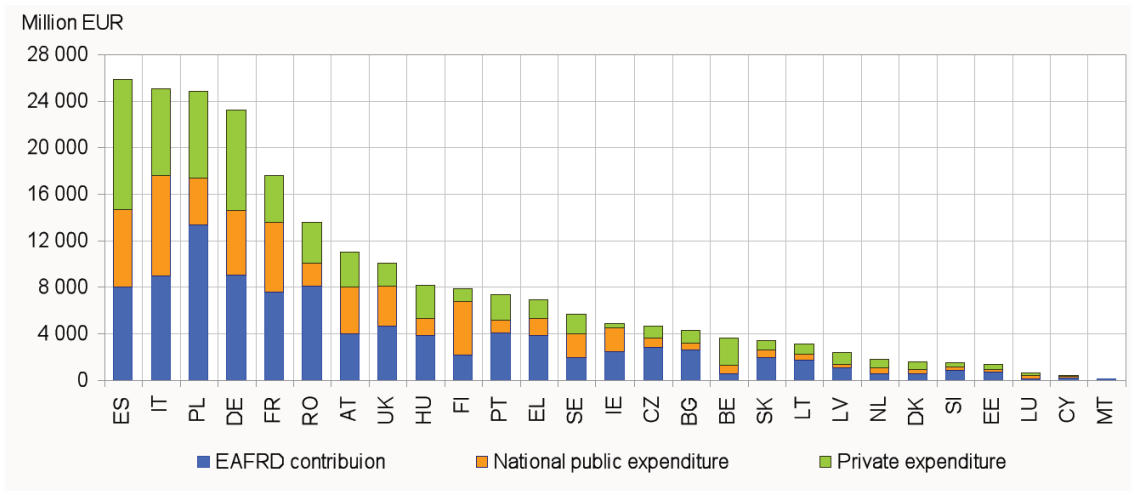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 RD(rural development)정책의 강화는 기후 변화, 자원의 효율성, 영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EU정책의 어젠다에 기인한 것임. 이러한 이슈들은 소위 CAP의 둘째기둥인 농촌개발정책(RD)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데 CAP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1기둥인 직접지불과 시장조정과 함께 EU에 전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농업과 역동적인 농촌지역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Expenditure in RD programme for 2007-2013



6.2. 프랑스

- 프랑스의 농업정책금융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EU의 공동정책 농업과 관련된 프랑스의 농업정책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프랑스 외에도 유럽 각 국가의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 공동 정책인 **CAP**을 기본으로 하고 각 나라에서 특수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프랑스 역시 농업금융 체계라는 것을 가지게 된 지는 약 50여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변화가 많았음.
- **CAP**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원국들이 1950년대부터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 농산물 우선공급, 공동재정부담원칙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최근 2번의 큰 개혁이 있었음.
 - 2013년 **CAP**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정책 역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EU는 1990년대 초반 이후 **CAP**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과잉생산을 방지하며 농업 부문의 관리 비용 지출을 제한하고 무역 왜곡을 줄이기 위한 것임. 또한 점진적으로 농촌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켜나가고 있음.
- EU 농업인들에 대한 지지는 가장 무역왜곡적인 앰버 박스(amber box)에서 블루 박스(blue box)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린 박스(green box)로 이동하였음.

- 앰버 박스의 보조금 지불에는 수출 보조금, 시장 개입, 저장 및 취급비용, 국내 산 농산물과 해외 농산물 간의 가격 차이로 인한 효과 등이 포함
- 블루 박스는 경종작물과 가축에 대하여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에 따른 가격 보상이 이루어졌던 1992년 CAP 개혁 때 도입

○ 그간의 CAP에서의 개혁을 살펴보면,

- '92~'99 orange box, blue box 채택
- '99~ RD 시작
- '03~ decoupled를 package형태로 시작하였고 blue box를 green box로 전환
- '08~ CAP “heath check”를 통해 직불제 상한을 20~25%에서 5~10%로 줄였음.

○ 이전에는 유럽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수입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가격지지 정책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WTO를 포함한 경제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단일 직접지불제 정책이 90%를 차지함.

□ Direct payment

- 현재 CAP 평균적으로는 direct payment에 1/3, 재해·경기대응으로 대표되는 시장 조치에 1/3, RD에 1/3지원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85%가 direct payment, 15%가 RD에 지원하고 있음.
- 패키지 형태의 직접지원은 생산비연계(decoupled)가 대부분이지만 각 나라별로 취약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연계 직불제 역시 조금씩 보유하고 있음.
 - 하지만, 그 수치는 5~10%를 초과할 수 없고, 프랑스의 경우 산악지역의 우유 생산, 양, 젖소, 육우, 플레인작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생산연계직불제 유지하고 있음.

□ Rural Development

- 프랑스의 농촌공간은 전체 국토면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업활동 비중이 높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2000년 이후 EU정책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을 정책우선순위에 놓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농촌공간에서의 경제, 사회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거주인구가 회복국면에 놓여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인구와 경제활동이 후퇴
- 2005년2월에 제정된 농촌지역개발에관한법(LDTR/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lux) 이후 추진하고 있는 ‘농촌특성거점지역개발(l’initiative des poles d’excellence rurale)’ 정책은 농촌개발정책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음. 유럽 농촌개발기금(FEADER)으로부터 지원받는 2007-2013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약 120억 유로가 농촌개발프로그램에 투자될 계획임.
- 공동농업정책 제2기중에 대응해 편성된 프랑스의 국가농촌개발계획(PDRN)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을 통한 농촌개발, 농업의 다면적 기능 전면에 부각하고 농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면적 기능에 대해 시장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원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함.
- 농촌개발 지원 분야
 - 농업경영구조개선, 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
 - 농업생산 전환, 신기술 도입, 품질개량 및 비식용생산
 - 지속가능한 임업개발
 - 고용창출과 농촌인구이탈을 억제하는 한편 지역의 경제사회망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다각화 활동
 - 노동조건의 개선, 삶과 기회균등의 조건 개선
 - 환경보호
 - 영농정착프로그램이 포함
- 현재 RD정책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RD내에서 risk regulation 진행하고자 함.
 - risk regulation 내용 중 첫 번째는 농민들의 수입을 보조하는 것임. 즉, 시장이 좋을 때 saving을 하고 나쁠 때 saving을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유인틀을 가동하는 것임.
 - 두 번째는 농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food safety나 재해에 대비하는 부분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아직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proposals) 중에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Market measures: 시장상황과 연계된 조치

- 재해 혹은 시장상황이 급속이 안 좋아졌을 경우의 지원하는 것임.
- 결국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소하는(resolve) 방식은 각 레벨마다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level 1은 바로 direct payment가 해당이 되고, level 2는 risk regulation이 될 수 있겠고, level 3는 market regulation임.
- market regulation을 하기 위해서는 EU와 협상이 필요함.
 - 첫 번째 tool은 private storage 방식으로 일선 operator들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는 것인데, 이 때 EU가 저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임.
 - 두 번째 tool은 매우 심각한 위기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EU가 직접 구매하는 것임. 곡류의 경우에는 maximum price가 € 100/1ton. 이 부분은 CAP예산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이 항상 조성되어 있었으나 향후 특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임. 본래 일정한 level이 되면 특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음.
 - 세 번째 tool은 수출보조(export supporting)인데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최근 20년간 1/3로 감소하였음.
 - 네 번째는 그 밖의 기타 tool들이 포함되는데, 소비자들의 위기감이 있을 때 제품을 홍보하는 것등이 포함됨. 예를 들어 사과 시장의 변동요소가 감지되었을 때 사과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을 말함.

표. CAP expenditure(프랑스)

(단위: 1000EUR, %)

구분	2008	2009	2007-2009	
decoupled 직접지원	5,695,704.9	5,746,779.1	56.3	70.6
그 외 직접지원	2,300,369.7	2,335,445.5	22.7	28.5
추가 지원	84,758.5	84,758.2	0.8	1.0
Direct Payment 소계	8,080,833.1	8,166,982.8	79.7	100.0
Cereals	8,157.1	6,025.7	0.1	0.3
Rice	0	0	0	-0.1
Refunds on non-Annex I products	8,844.3	5,222.4	0.1	1.1
Food programmes	52,582.7	75,804.5	0.6	5.2
Sugar	106,886.6	39,512.8	0.9	8.1
Olive oil	569.4	713.3	0	0.1
Textile plants	13,433.9	15,873.2	0.1	1.2
Fruit and vegetables	128,473.3	83,097.8	1.1	10.4

Wine sector	278,203.7	245,569	3.1	28
Promotion	7,604.3	9,327.1	0.1	0.7
Other plant products/measures	138,112.2	142,685.8	1.3	12.2
Milk and milk products	28,984.8	44,795.4	0.5	4.8
Beef and veal	640.1	826.3	0	0.1
Sheepmeat and goatmeat	-	-	-	-
Pigmeat, eggs, poultry and other	95,131.8	85,973.1	0.9	7.8
Sugar Restructuring Fund	42,888.6	575,323.8	2.1	18.9
시장조치소계	910,512.7	1,330,750.3	11	100
RD소계	942,359.1	947,341.9	9.2	100
합계	9,933,704.9	10,445,075	100	

□ 농업정책자금의 취급기관 및 역할

○ 2009년 농업행정조직개편에 따라 EU 공동농업정책 관련 예산을 취급하는 기관이 4개 기관으로 조정

- FranceAgriMer : 기존의 5개 품목별 공동농업시장조직(Ofimer, Office de l'élevage 등)을 합병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시장조직화 및 EU의 시장조절 규정관리, 품목별 조직화 및 기술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임. EU로부터 시장정책과 관련된 예산 9억 유로 등을 포함해 연간 16.4억 유로(2009년 기준)를 생산지도, 위기관리 분야 등에 지원
- ASP(지불청) : EU 공동농업정책 제1기둥 및 제2기둥 관련 직불예산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임.
- 해외영토에 대해서는 Odédom이, 코르시어(Corse)에는 ODARC이 EU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담당

○ ASP(파리 지불청)은 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감시를 받는 기관임. EU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고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집행기관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음.

- 4~5단계의 심의기구가 ASP안에 존재하는데, CCOOP, Cour du cond 등이 EU, FRANCE에 의해 동시 감독을 받음
- EU commission은 ASP 지불에 대해서는 100%, 은행 지불에 대해서는 5% sampling을 하여 감독하고 있음.

- 따라서 EU CAP중에서 금융과 관계되는 경우는 저리융자만 해당됨.
- 농업지원 저리융자를 취급하는 CA(Crédit Agricole) 등 시중은행이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매년 농림부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5개 정도의 취급은행을 선정함.
 - 1990년까지는 법률에 의해 농업은행이 농업지원 저리정책자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였으나, 이후로는 입찰경쟁방식으로 선정
 - 경쟁입찰방식 도입 이후에도 CA의 독점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은행의 정책자금 취급비율은 전체자금의 85%를 점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 저리융자는 현재 영농후계자 지원정책에만 해당하는 것임. 이전에는 농기계 융자도 했지만, 최근에는 청년영농정착자금 정책만 해당됨.
 - 저리융자는 정부가 정해준 금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함.
 - 현재 농민들에게 대출된 금액 총액은 400억 유로
- 젊은 영농인 대상 대출(Les prêts a moyen terme speciaux jeunes agriculteurs; MTS-JA)
 - 청년들에게 주는 것으로 예전에는 영농확장, 건물수리 등에 대해서 business plan을 제출하면 가능하였음. 이를 은행이 accept하는 방식임.
 - CA 실적 중 2010년은 특별한 경우로 위기라는 판단 하에 정부가 농업분야의 지원을 좀 많이 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은행들과 정부가 이자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얼마나 할 것인지 협상을 통해 결정하였음. 예를 들면 BNP는 1~2%로 결정되었음.
- 협상 내용은 농림부, 대통령(사르코지, 2010)이 농업지원 플랜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함. 이 플랜은 사업비용에 대한 특별한 대출 계획임.
 - 2010년의 구체적 협상내용은 3년 저리융자를 하는데, 1/2는 정부가 부담, 1/2는 은행이 부담한다는 내용임.
 - 현재 2009.12~2010.4까지 10억 유로를 지원하였음.

○ 저리용자의 장기추세는 감소추세임.

- 신규로 농업에 진입한 신규 농업인은 2010-2011에 14000명인데 이중 저리용자에 해당하는 농가는 5600명에 불과함. 전체 저리용자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보조금 지원과 저리용자는 대체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SP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서 간 것이 아니고, 저리용자 역시 조건이 까다롭고, 서류준비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종의 농민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쪽이 더 간편할 수 있음.

표. 저리용자 대상 현황

	신규진입농업인	저리용자 대상	지원받지 않은 농가
2005	13,669	5,365	8,304
2006	14,070	5,585	8,485
2007	14,295	5,215	9,080
2008	14,624	6,004	8,620
2009	13,300	5,283	8,017
2010	14,000	4,679	9,321

○ 2008년은 매우 의례적으로 증가한 해이고, 2011년은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CA의 실적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2년엔 감소할 전망.

- 왜냐하면 경제위기와 더불어 CAP이 2013년에 개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투자를 확대할 이유가 없음.

○ 농민대상 일반대출은 CA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약 10%, 평균적으로 60억 유로
- 2010년 57억유로, 2009년 61억 유로, 2008년은 의례적으로 71억 유로가 농업 부문의 대출실적임.
- 2011년도의 경우 2010년의 8개월 자료와 비교했을 때 12.7% 성장

○ 2010년 기준 CA의 저리용자 실적은 357M€ 인데 이는 프랑스 전체 저리용자 총액 468M€ 의 76.2%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 CA 광역은행의 농업부문 대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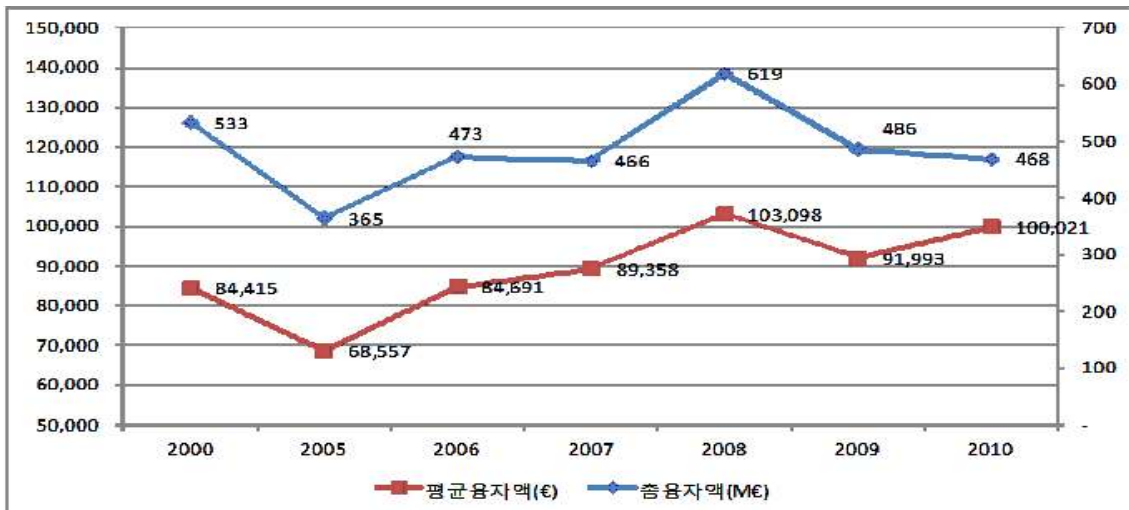
(단위: Million euros)

	2007	2008	2009	2010	2011
non-subsidized for investment	3,593.6	4,209.7	3,697.4	3,400.4	3,811.1
non-subsidized for the recovery of working capital				965	
저리융자(A)	321.6	368.2	277.4	238.1	276.5
비중(A/B)	(6.7%)	(6.7%)	(5.9%)	(5.4%)	(5.6%)
소계	3,915.2	4,577.9	3,974.8	3,638.5	4,087.6
주택	831.7	800.9	610.2	696.8	753.7
소비	86.3	86.6	93	91.8	100.5
총계(B)	4,833.2	5,465.4	4,678	4,427.1	4,941.8

주: 2011년도의 자료가 8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각 연도 역시 8개월로 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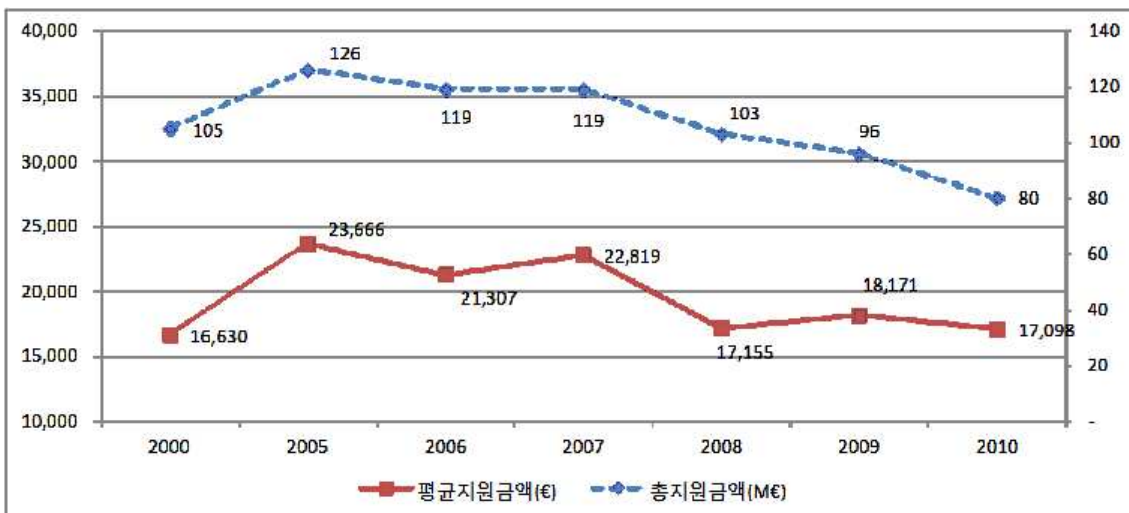
자료: Credit Agricole S.A.

그림. 프랑스 저리융자(MTS-J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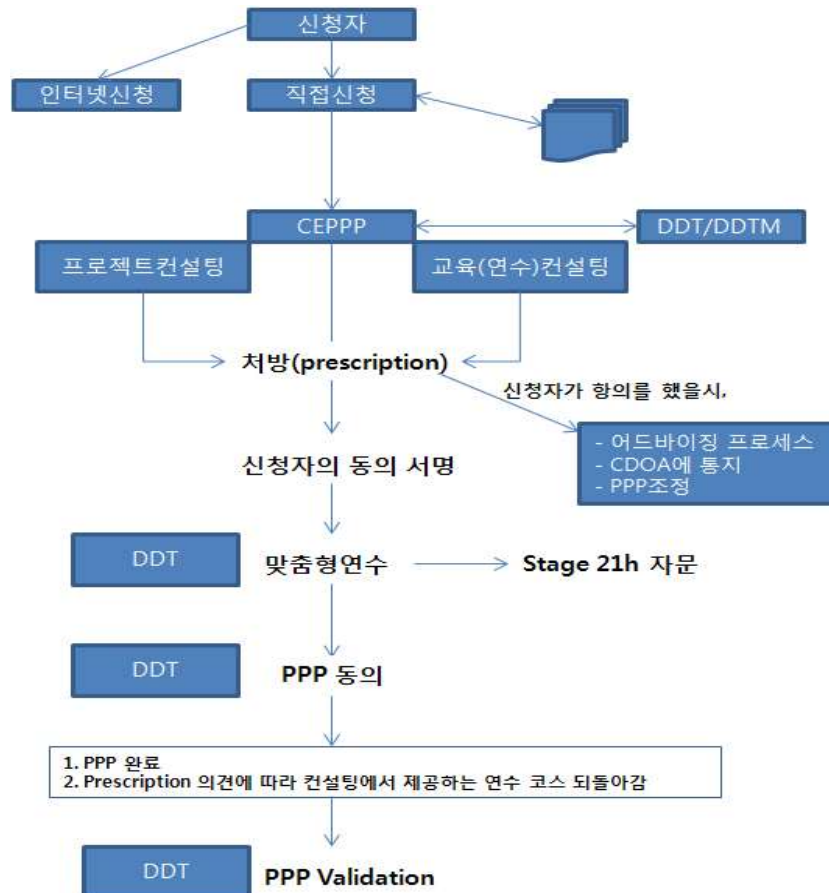
자료: Agreste-ASP

그림. 프랑스 DJA 보조금 현황



□ 농업정책금융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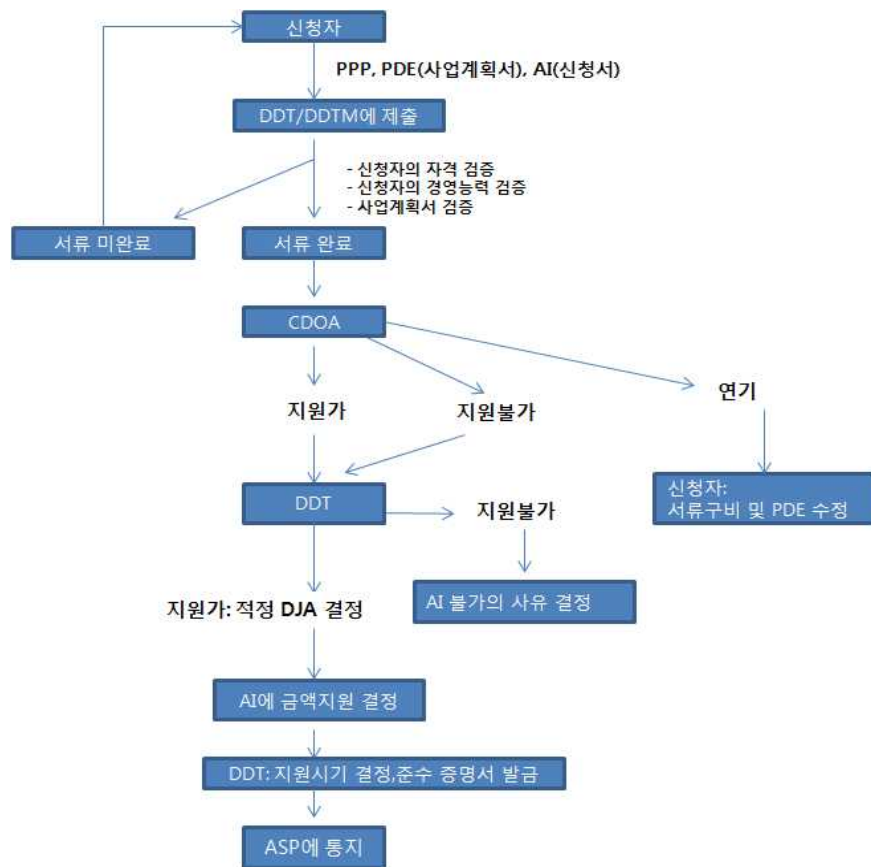
그림. 정부지원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절차(1st phase)



○ 지원절차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영농자격을 심사하고 두 번째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 첫 번째 영농심사자격은 신청자가 인터넷 신청 혹은 농업회의소나 청년농민회에 가서 신청함.
- 이 때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신청자가 자가진단한 서류를 제출

그림. 정부지원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절차(2nd phase)



- 신청서심사는 CDOA가 심의 역할을 함.
 - CDOA는 심위원회회로 회장은 도지사가 맡고 행정, 농민협회, 은행이 위원으로 참가함. 지방광역은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농가 설립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들이 탐방 프로젝트를 수행함.
 - 이들은 대부분 청년영농정착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실제로 전체 신청서의 7/10이 작은 농장의 법인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함.
- 신청서 거부율은 연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10%미만
- 대출기간은 6-18개월로 연수기간이 있으면 최장 18개월까지 늘어남.
 - 2-3년 전에는 연수가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높아졌음. 이 비용은 모두 정부의 경비였음. 결국 농민 협회도 연수는 필요한 사람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출 절차 선호하게 되었고 간소화 되었음.
 - 현재 대출기간은 48시간이내일 경우도 많음. 특히 농기구 투자가 매우 간단한데 이는 트랙터 상인들을 통해서 용자를 신청하기 때문임. 트랙터 상인들은

CA의 extranet으로 이들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함.

-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열림.
 - 한달에 한번 열리는 지원금에 대한 커미티에서 저리융자도 함께 처리

□ Fond de grantie(신용보증기금)

- Fond de grantie를 관리하는 회사가 CAMCA이고 이 기금은 은행을 위한 보증임.
 - 이 기금은 insurance기능을 하는데 보험료는 0.2-0.4%수준임.
 - CA의 자회사인 CAMCA가 관리회사임.
- 다른 분야에서는 농민이 아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정부기관)로 OSEO라는 정부기관이 신용보증기금관리회사임.
 - 따로 독립된 조직으로 존재.
 - 농업분야에도 정부기관인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보험료면에서 현재 CA가 경쟁력이 있음.
- CA에서는 주로 인보증(부모보증)이 대부분임.
 - 대부분 부모보증. 청년 영농들의 경우 영농 후계자임.
- 독립성이 없으면 default rate을 낮추기 위해서 대출심사가 너무 엄격해질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대출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CAMCA의 보험료가 워낙 낮은 이유는 실패율이 낮기 때문임.
 - 실제로 보증건수는 연간 100건 정도로 매우 낮음
 -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 역시 개인적인 사고인 경우에만 가능

□ 신용관리

- 농민 개개인의 신용관리는 광역은행(regional bank)에 부서가 있고, head office는 개입하지 않음.
 - 이는 지방분산화가 중요하기 때문임.
 - 80%이상이 이미 고객이기 때문임.

- 금액에 따라서 고객담당 extranet(판매상)을 가동시켜 대출절차를 매우 간소화
- 금액이 높거나 신청자가 불량하면 매주 심사위원회에 올림.

○ 3개월 연체율이 3.11%에 불과

6.3. 독일

□ 독일 농업 주요 지표

- 독일은 국토면적의 약 39.8%(2007)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약 17.5%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인구임.
- 농업인구는 2009년 기준 915,130명으로 이 가운데 81.6%가 가족농임.
 - 농업인구는 전체 노동공급을 기준으로 보았고, 풀타임 농업인구는 이 중 606,300명임.
- EU의 공동농업정책과 관련한 독일의 농업에 대한 지출은 2009년 기준 총 75억 유로로 이 중 73.1%는 Direct payment에, 15.9%는 RD, 시장조치에 11.1%를 하고 있고 75억 유로는 EU-27에서 1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임.
- 독일의 경우 보조금 등 정부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에 이관되었음. 과거에는 Rentenbank에서 튀링겐 주, 헤센 주 등에서 정책금융(AFP관련)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분산화 정책에 의해 지방정부 담당임.
 - 연방정부에서 담당하는 저리융자는 없음.
- 보조금과 Rentenbank와의 관계에서 과거 튀링겐 주의 경우 보통 6% 이자율은 5% 보조하고, 농민들은 1%만 내게하였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의 현금 지급으로 돈을 주는 것이 관리가 쉽고, project review도 초기에 한번만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낮은 것을 선호하였음.
 - 튀링겐 주에서 저리융자와 관련된 정책금융사업의 중단을 Rentenbank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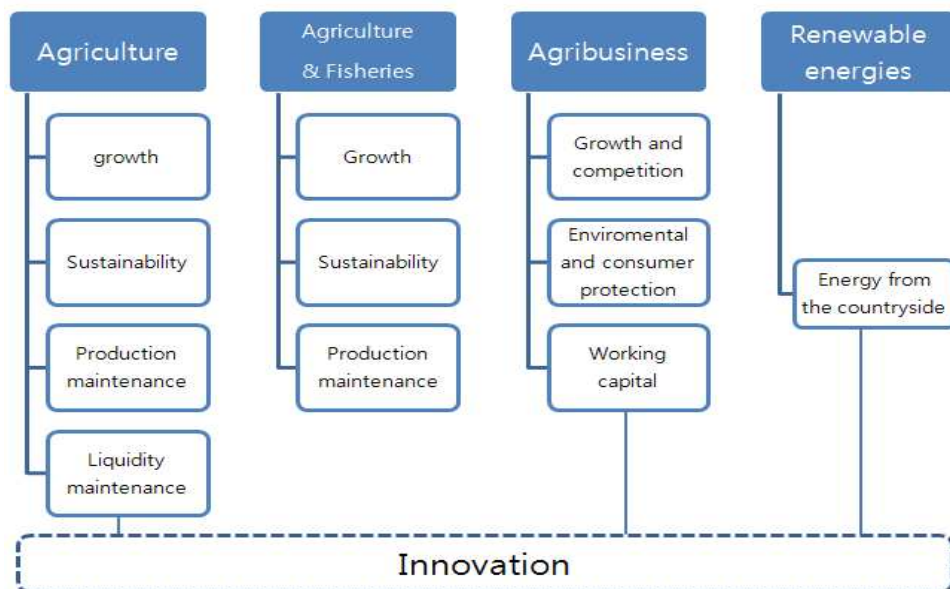
하였음.

- 헤센주는 그 비중이 매우 작았음.

□ 렌텐뱅크의 투자분야와 실적

- 농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렌텐뱅크의 특별대출(special promotional loans)제도가 현재 독일 농업금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프랑스 전체 저리융자 총액은 4억6천만 유로이고 마켓쉐어가 가장 큰 CA의 경우에도 일반대출, 모기지, 소비대출을 포함한 농업부문 실적이 평균 60억 유로임.
 - 독일 역시 렌텐뱅크의 농업부문 특별대출 실적은 2010년 기준 60억 유로임.
- 렌텐뱅크의 농업관련 대출프로그램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다면, 그 범위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primary production) 'agriculture'부터 수산업, 농업과 관련된 2·3차산업(agribusiness), 재생에너지까지 매우 다양함.
 - 각 분야에서 렌텐뱅크의 농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사업은 독일의 전체의 80%가 렌텐뱅크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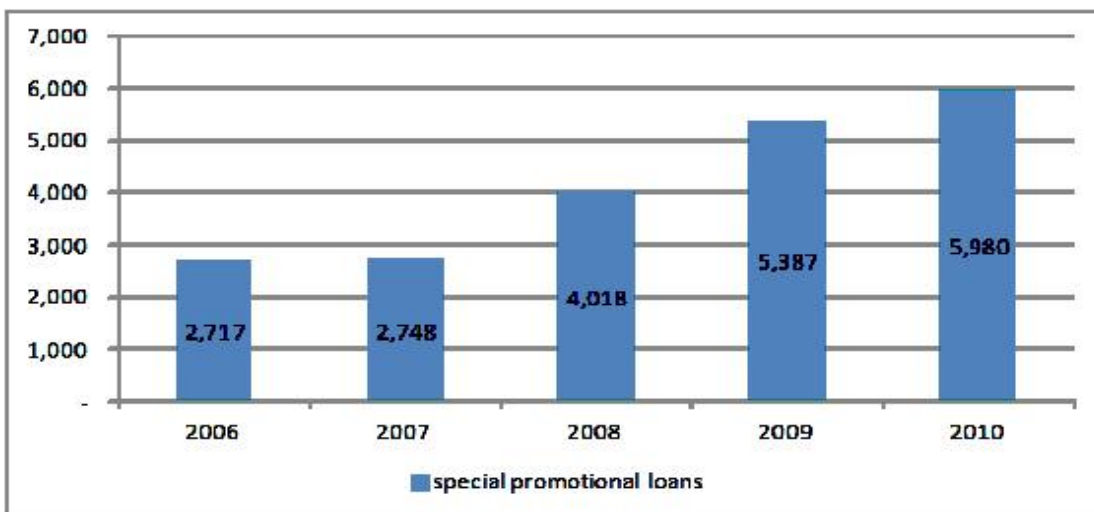
그림. 렌텐뱅크의 투자 분야



○ 특별대출로 표현되는 신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농업부문 특별대출은 2010년 기준 약 20억 유로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어난 금액이지만, 그 비중은 3%p정도 감소하였음.
- agribusiness부분은 금액과 비중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대출은 23억 유로로 전체 실적의 38%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0%p가량 확대된 것임.
- 농촌개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5%p 정도 줄어든 12억유로인데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때문이거나 CAP의 농촌정책의 강화에 따른 보조금지원의 확대 때문일 수 있음.
- 독일 정부가 special liquidity program을 제공한 경우 특별 저리대출로 약 10억 유로 이상 대출이 되었음.
- 이 경우 고정금리로 1~2%를 농민이 부담하게 됨.

그림. 렌텐뱅크의 특별대출 실적



○ 전체 약 60억 유로의 신규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한 것임.

- 작년, 30000loans이 보통이었으나 15,000개로 줄었음.
- 전체 60억 유로 중 약 10억 유로는 solar energy 투자한 것으로 이 부분의 증가세는 확연함.

표 4-8. 신규 특별대출 실적

(단위: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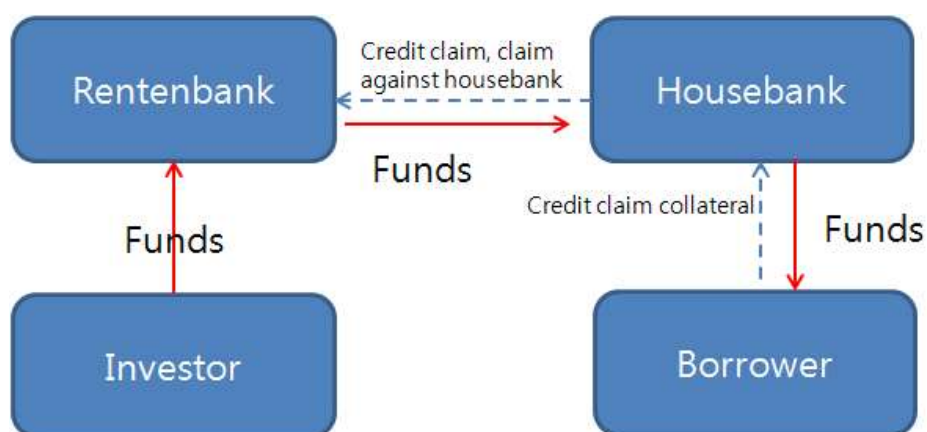
	2010		2009	
Agriculture	2,056	34.4%	2,006	37.2%
특별 저리대출	1,141	19.1%	1,308	24.3%
Agribusiness	279	4.7%	204	3.8%
renewable energy	2,322	38.8%	1,554	28.8%
rural development	1,243	20.8%	1,354	25.1%
other special promotional loans	80	1.3%	268	5.0%
합계	5,980		5,387	

- 전체 2010년 말 독일의 농업부문 대출 총액은 40.3 billion 유로인데 이중 조합은행은 49%, 저축은행은 24%, 그 외 은행이 27%을 차지하고 있음.
- 렌텐뱅크의 재대출 금액은 5.9 billion 유로임.

□ 농업금융에서의 렌텐뱅크의 역할

- 렌텐뱅크는 직접대출은 하지 않고 하우스뱅크와 거래하는 것임.
- 농민들 입장에서는 렌텐뱅크의 대출프로그램과 하우스뱅크의 대출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렌텐뱅크가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리한 것이 확실함.

그림. Housebank 금융프로세스



- 현재 렌텐뱅크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받지 않고 있으나 그들의 신용등급은 AAA로 시장, 신용 위험으로부터 렌텐뱅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 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음.

- 신용부서는 하우스뱅크 신용도를 담당

○ 독일의 경우 최근 농업금융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재생에너지 부분 특히 태양 에너지 부분의 급속한 성장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었음.

- 이러한 시장변동은 농민들 입장에서 적응하고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의 정책 방향도 이에 대응하여야 함.

○ 대출심사기간은 하우스뱅크와 렌텐뱅크 사이에서는 1~2일, 하우스뱅크와 농민들 사이에서는 2~6주가 걸림. 이 때 신청자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빨라짐.

7. 수집자료

2011 French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Fisheries, Rural affairs and Spatial Planning in Actions

Agriculture et Agro Alimentaire(reported by Credit Agricole S.A)

Aktivite 2011 des caisses regionales((reported by Credit Agricole S.A)

Dictionnaire Permanent of Entreprise Agricole-Installation

Presentation for Summary of Rentenbank(agribusiness dept.)

Annual Report 2010, Rentenbank

Financial Report end of June, 2011, Rentenbank